

한국, 카타르 월드컵 H조 편성

포르투갈·우루과이
가나 등과 11월 조별리그
손흥민-호날두 맞대결

한국의 7번 손흥민(토트넘 핫스퍼)과 포르투갈의 7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난다. 그리고 파울루 벤투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조국인 포르투갈과 격돌한다. 한국은 지난 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도하 전시컨벤션센터(ECC)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들어갔다.

운명의 장난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포르투갈과 같은 조에 묶인 적이 있다. 월드컵에서는 20년만에 재대결이다. 현재 한국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벤투 감독은 20년 전 포르투갈 선수로 활약했다. 이제는 한국을 이끌고 조국 포르투갈을 상대해야 한다.

손흥민과 호날두의 만남도 흥미롭다. 손흥민은 20대 시절 '손날두'라고 불렸을만큼 호날두와 닮은 꼴이었다. 한때 손흥민도 호날두의 '호우 세리머니'를 따라하기도 했다. 이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손흥민과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을 치를 호날두의 맞대결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벌어진다.

공교롭게도 포르투갈과 맞대결도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마지막 경기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는 12월 2일에 열린다.

우루과이와 만남은 설욕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에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에서 만난 경력이 있다. 또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는 16강전에서 격돌했다. 당시 루이스 수아레스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1-2로 져 8강 진출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 수아레스 역시 이제는 전성기를 거의 지났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한번 해볼만 하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도 같은 조에 묶였다. 가나가 FIFA 3월 랭킹에서 60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역시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다만 일단 '죽음의 조'는 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11월 24일 우루과이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고 11월 28일에 가나전을 갖는다.

일본은 '죽음의 조'에 묶였다. 일본은 스페인 독일을 비롯해 뉴질랜드, 코스타리카의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자와 E조에 편성됐다. 스페인 독일과 같이 묶였다는 점에서 2강 2약 구도지만 일본으로서의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이란이 잉글랜드, 미국



카타르 축구 전설 이델 아흐메드 말알라가 지난 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전시컨벤션센터(ECC)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에서 한국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뽑은 뒤 들어보이고 있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조 편성 결과	
A조 = 카타르,네덜란드,세네갈,에티오피아	
B조 = 잉글랜드,미국,이란,웨일스,우크라이나,스코틀랜드	
C조 = 아르헨티나,멕시코,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	
D조 = 프랑스,덴마크,튀니지,호주,UAE,캐나다	
E조 = 스페인,독일,일본,뉴질랜드,코스타리카	
F조 = 벨기에,크로아티아,모로코,캐나다	
G조 = 브라질,스위스,세르비아,캐메룬	
H조 = 포르투갈,우루과이,대한민국,가나	

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유럽지역 플레이오프 승자와 B조에 들었다. 만약 웨일스 또는 스코틀랜드가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과한다면 잉글랜드와 함께 같은 영국권 팀의 맞대결이 월드컵에서 벌어진다. 미국까지 포함한다면 역사적으로 영국이라는 한 뿌리에서 출발한 팀의 맞대결이어서 흥미롭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와 C조에 들었다. 리오넬 메시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맞대결도 흥미로운 조다.

이밖에 개최국 카타르는 네덜란드, 세네갈, 에콰도르와 A조에 속했다. 카타르는 에콰도르와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 2002년 한일 대회 이후 20년만에 열리는 아시아 월드컵인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개최된다. 카타르 월드컵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1월 21일 개막해 12월 18일 결승전까지 27일 열전으로 펼쳐진다. /뉴시스

벤투호,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한 경기장서

벤투호가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한 경기장에서 치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2022 카타르월드컵 조 추첨을 진행한 뒤 경기 시간과 장소 등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FIFA 랭킹 29위)은 조 추첨 결과 포르투갈(8위), 우루과이(13위), 가나(60위)와 함께 H조에 편성됐다. 한국의 조별리그 첫 상대는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다.

11월24일 카타르 알리아한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갖는다.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 Kick-off다.

2차전은 11월28일 밤 10시 가나와 불고, 3차전은 12월3일 오전 0시 포르투갈과 만난다.

조별리그 3경기는 모두 알리아한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다. H조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같은 경기장에서 치르는 건 한국뿐이다. /뉴시스



(사진 왼쪽부터)신소망·유규민·김영빈·신유진 선수.

전국대회 최강자 '재증명'

익산시청 육상부, 실업선수권서 금 3·은 1개 획득
신소망, 1500m·유규민, 세단뛰기서 '대회 신기록'

익산시 육상부 메달 4개를 획득하며 전국대회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익산시청 육상부는 지난달 30부터 이달 1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육상부는 한국 신기록 보유하고 있는 신유진 선수가 원반던지기, 신소망 선수가 1500m, 유규민 선수가 세단뛰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김영빈 선수가 멀리뛰기에서 은

메달을 차지하며 육상 강팀임을 다시 한번 알렸다.

특히 신소망 선수와 유규민 선수는 대회신기록을 기록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선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주형 육상감독은 "항상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익산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맞손'

무주군, 국기원 추진위와 교류협정 체결

무주군은 지난 2일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위원회와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구현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최재춘 위원장이 함께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인재양성에 협력하고 'one Taekwon-do!! GO!! 2024 UNESCO' 챌린지 운동에 동참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2024년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위원회 등재실현 활동에 힘을 모으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익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에 전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태권도의 가치와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과 함께 유네스코 등재 또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무주군의 모든 역량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유산으로,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추진위원회는 태권도를 202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무주=전문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